

광산구 사회적경제 성장 날개 편다

협업 네트워크 공유 공간 개소

'한다점빵' 온라인 판로 개척

22개 기업 입점 85개 제품 판매

광주 광산구가 사회적경제의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한다점빵' 온라인스토어를 중심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공동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어룡산협 하남지점에 광산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공유 공간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전 광주송정역 인근에 있던 광산구 협동조합을 옮긴 것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갖춰져 있으며, 체육, 공예, 식품 등을 다루는 9개 기업이 입주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광산구는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력해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닌 협업을 강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2019년부터 구청과 광주송정역 지하 철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사회적경제 기업 공동브랜드 '한다'를 내세운 '한다점빵'을 열어 제품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도 '한다점빵'을 개설, 온라인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월 기준 한다점빵 온라인스토어에는 22개 기업이 입점해 더치커피, 빵, 김부각, 반찬 등 식품, 수공예품, 화훼류 등 85개 제품을 판매 중이다.

광산구는 이와 함께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시민 면역력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행복으로 걷기광산'과 연계해 시민의 관심과 이용을 유도하는 프로젝트도 선보이고 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공유공간은 광산구의 체계적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사회적경제 기업의 강점을 묶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는 '중심기지'가 될 예정이다.

광산구 사회적경제 연합회, 사회적기업 협의회, 협동조합 협의회 등 사회적경제 단위별 협의체의 공동회의실이 마련될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점 과제로 설정한 광산구는 공유공간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업,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을 늘리고,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기업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를 부각할 수 있는 사업 기획, 특정 주제, 기념일 등을 겨냥한 '패키지' 등 '같이'의 힘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맞닿아 있다"며 "연대와 협업을 통한 상생을 바탕으로 지역의 여러 사회적경제 주체가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20대 대선 투표율 높이기 총력전

'나+20' 투표 참여 캠페인

저동불편자 등 투표 맞춤 지원

광주 광산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3월 9일)를 맞아 많은 시민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표율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역대 선거 투표율을 비교 분석하고, 지역, 연령별로 투표율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해 대상자별 맞춤형 투표참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나+20 주권운동' 투표 참여 캠페인(포스터)을 진행 중이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나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합니다'라는 다짐을 공유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나부터 시작해 가족, 친구, 동료 등 모두가 함께 투표하자'는 약속을 전파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다.

유권자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로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3월 4-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 참여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18-19세(2003-2004년생) 청소년 유권자에 대해선 학교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선거일정과 참여를 홍보하고, 골목 상권 할인 등 투표인증샷 이벤트도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받아 농촌지역 거주민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차량 지원도 적극 홍보 중이다. 관내 경로당,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이동편의

나+20주권운동



3월 4(금)-3월 5(토)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차량 사전예약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본 투표일에는 농촌지역인 임곡·동곡·삼도동 등 8개동 15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25인승 투표편의 차량 10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기업 및 소상공인 노동자의 투표시간 보장과 참여를 독려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한 표는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사전투표부터 본 투표까지 곳곳마다 시민의 발길이 이어져 아름다운 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 예상 선거인 수는 32만6000여명(2월25일 최종 유권자 수 확정)으로, 이는 광산구 인구의 80.8%에 해당한다. 사전 투표소는 광산구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될 예정이다. 본 투표일에는 총 96개의 투표소가 운영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장덕도서관

'모두 모여 체험 공방' 운영

수강생 12명 선착순 모집

광주는 "지난 22일부터 '모두 모여 체험 공방'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모두 모여 체험 공방'은 일일 공예 체험 과정으로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천 아트, 캐릭터 라탄바구니, 소이 캔들, 마크 라메 도어벨 만들기가 차례로 진행된다. 22일부터 각 체험별로 12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광산구평생학습포털(edu.gwangsan.go.kr)에서 가능하다. 일부 체험 과정은 재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문의 사항은 장덕도서관(062-960-3989)로 전화하면 된다.

장덕도서관은 지난해 인문예술 모임 공간 '모두 모여'를 조성했다. 동아리 및 모임 활동 시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립도서관 누리집(lib.gwangsan.go.kr/J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



쌍암공원 야경.

광산구, '운동하기 좋은 공원' 조성 사업 확대

43억 원 투입 19곳 시설 개선

광주 광산구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해 '운동하기 좋은 공원'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는 43억 원을 투입해 총 19개 공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한다.

월곡근린공원은 산책로 개선과 경관조명 확충 등 '주민친화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산정근린공원은 노후등 교체, 난간과 산책로 정비, 수목 식재 등을 추진한다. 시민면역력 증진을 위한 행복으로 걷기 광산 프로젝트와 연계해 걷기 좋은 공원도 대

폭 늘린다.

신가2근린공원은 '스마트 헬스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건강코스를 조성한다. 하남산단 인근 안청 하남근린공원도 상반기 중으로 산책로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위축된 시민이 마음 놓고 휴식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관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엔 38억 원을 들여 주요 공원의 산책로, 운동시설, 조망시설 등을 개선하고, 이색 휴게시설을 설치해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사용 영상 '눈길'

장애유형별 사용법 쉽게 설명

장애인복지관 누리집 등 공개

광주 광산구는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광산구는 일부 장애인들이 자가진단키트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애유형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영상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영상은 광산구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된 '미디어룸'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수어통역사 등이 참여해 발달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3편을 제작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선 알기 쉬운 용어로 사용 방법을 풀이하고, 청각장애인 대상 영상은 위한 수어통역으로 자세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진단키트 볼륨의 생김새, 사용과정, 촉감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영상은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의 누리집, '유튜브(YouTube)' 채널, 사회적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등에 공개돼 필요한 장애인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신속항원 검사 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광산구 공식 홍보 채널과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광산구는 광주 다른 자치구, 정부 기관 등과도 연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애유형별 자가진단키트 영상이 방역지침 변화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고, 건강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